

세계도시동향

Global Urban Trend

헤드라인뉴스 전통 농수산물시장의 스마트화 추진

행재정·교육 취약계층의 청년 대상 맞춤형 직업교육과정 운영

산업·경제 올해 '녹색공장'과 '녹색산업단지'를 대폭 늘릴 계획

도시교통 디지털 주차요금 결제시스템 전면 도입

사회·복지 민간단체 주도하에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생활임금 제도 시행
출산휴가 확대 등 고용법 개정안 통과

세계도시동향 해외통신원

〈북·중·남미〉		〈아시아·아프리카〉		〈유럽〉	
뉴욕	윤규근	쿠알라룸푸르	홍성아	암스테르담	장한빛
로스앤젤레스	최윤경	싱가포르	이은주	베를린	신희완
샌디에이고	김민희	뉴델리	박원빈		유진경
샌프란시스코	박신아		박효택		홍남명
시카고	강기향	자카르타	박재현	프랑크푸르트	이은희
올랜도	박혜진	도쿄	이선인	하노이	이희재
워싱턴 D.C.	이정근	광저우	손지현	스톡홀름	허윤희
하와이	임지연	베이징	정민욱	바르셀로나	박정수
휴스턴	이경선	상하이	문혜정		진광선
에드먼턴	장지훈	충칭	모종혁	런던	이용훈
토론토	고한나	칭다오	강경이	로마	서동화
		나이로비	한 울	피렌체	김예름
				보르도	김준광
				파리	김나래

전통 농수산물시장의 스마트화 추진

중국 칭다오시 / 산업·경제

칭다오시는 전통 농수산물시장 정비 및 개선 사업을 통해 쇼핑 환경 및 인프라를 개선하고, 운영 관리의 스마트화를 추진함으로써 점주와 이용자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배경 및 목적

- 골목상권 전통시장은 도시 이미지를 보여주는 주요 창구이자 서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장소
- 칭다오 농수산물 전통시장(農貿市長)은 규모 부족, 지역적 분포 불균형, 시설환경 열악, 노점상 불법 점유, 시장 공익성 부족 등이 문제로 지적
- 이에 칭다오시 차원에서 2021년부터 전통 농수산물시장 정비 및 확충 계획을 추진 중이며, 특히 시설/운영 측면의 디지털화, 스마트화를 본격 시도

주요 내용

- 칭다오시 시장감독관리국은 <칭다오 전통 농수산물시장 전용 계획(2021-2035년)>을 공식 발표하고, 전통시장의 정비, 개선 및 확충 등을 추진 중
 - ‘규범화, 스마트화, 친서민화, 특색화, 고품질화’ 방향에 따라 ① 지역 내 기존 농산물시장의 전면 개선, ② 기존 서비스 사각지대 보완 개선, ③ 시장에 대한 시민들의 실질적 니즈 해결, ④ 지역별 실제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시장 확충, ⑤ 도보 10분 거리 이내 농수산물 시장권 형성 계획 등을 추진
 - 과학적/합리적 기획 방식에 따른 전통시장 개선, 보완, 신축 작업을 통해 농수산물 전통시장의 구조를 최적화하고 시장의 대중성과 공익성을 부각시켜 칭다오시가 추구하는 ‘국제적 소비중심 도시’, ‘명품도시’로서의 목표에 부합하는 전통시장 체계를 구축해나갈 예정
- 기존 농수산물시장 개선 및 활성화 과정에서 ‘외적 환경 쾌적화’, ‘운영방식 스마트화’, ‘시장 이용 편의성 증진’에 중점을 둬

- ‘안산얼루(鞍山二路) 시장’은 전통 농수산물시장의 스마트화에 성공한 대표적 사례
 - 안산얼루 전통시장은 Missfresh(중국어명: 每日優鮮, 텐센트가 투자하고 위챗(Wechat, 微信)¹⁾으로 운영하는 온라인 식료품 배송 스타트업)와 제휴해 표준화된 하드웨어 인프라와 스마트화 운영시스템을 갖춘 시장으로 탈바꿈
 - 하드웨어 시설 부문
 - 배연(排煙)/환풍 시설, 냉장/냉동 저장 시설, 조명등 업그레이드와 기능별로 명확한 공간 구획
 - 시장 입구에 상품 검측실 설치, 농약 잔류 등 식품 안전 검사 실시
 - 시장 입구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통해 농약잔류량 검출 현황, 물가 현황, 원산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
 - 시장 내 품질 안전관리 강화로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거리와 쾌적한 거래환경 제공
 - 스마트화 운영 부문
 - 점포마다 설치된 스마트 전자저울(무게 측정, 거래, 지불 기능 탑재)과 전자식별 코드(一碼通)를 통해 판매데이터가 플랫폼 ‘스마트브레인’으로 실시간 전송
 -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분석 내용이 데이터관제실 ‘스마트브레인’ 스크린을 통해 실시간 제공(예: 당일 시장 유동인구 현황, 거래액, 거래품목, 주문량 순위, 고객 체류시간, 고객 유형 분포 현황, 품질관리 검측 결과 등)
 - 거래 관련 정보를 직관적으로 수치화해 제시하므로 점주 입장에서는 입고(入庫) 물량 및 구매 필요 품목 파악, 구매계획 수립, 재고(在庫) 물량 감소, 수급 안정 유지, 비용 절감 및 수익 증대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시장 이용자들은 위챗 온라인 주문 프로그램으로 사전 주문 후 현장 픽업 가능

정책 평가

- 대형마트, 온라인 앱 위주의 쇼핑 방식이 보편화되고 있는 가운데 칭다오市는 전통 농수산물시장 운영 관리의 스마트화를 추진하고 새롭게 외관을 단장해 도시 내에 다양한 형태의 쇼핑공간이 공존, 상생하도록 유도
 - 시장 이용자들의 최근 구매 형태, 쇼핑 트렌드를 전통시장에도 반영해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화 관리감독 시스템을 적용
 -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한 효율적인 점포 운영, 소비자들의 안심 구매를 실현

1) 중국 인터넷 기업 텐센트가 운영 중인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

<https://baijiahao.baidu.com/s?id=1700975721301474641&wfr=spider&for=pc>

https://m.thepaper.cn/baijiahao_16146315

https://m.thepaper.cn/baijiahao_16142245

강 경 이 통신원, jiongli1011@naver.com

올해 ‘녹색공장’과 ‘녹색산업단지’를 대폭 늘릴 계획

중국 충칭시 / 산업·경제

중국은 ‘공업녹색발전계획’이라는 친환경 산업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이를 선도할 ‘녹색공장’과 ‘녹색산업단지’를 선정하여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 녹색공장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됨. 2021년 중국 전역에서 662곳의 녹색공장이 선정됐는데, 충칭시는 18개에 불과. 올해 충칭시는 ‘2022년 에너지 소비 감축 목표’를 준수하기 위해 녹색공장은 50개, 녹색산업단지는 5개를 추가로 대폭 늘릴 계획임

‘녹색공장(綠色工廠)’에 대한 이해

- ‘녹색공장’은 중국 중앙부처인 공업정보화부(工業和信息化部)가 제1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 ‘공업녹색발전계획’을 내놓으면서 진행 중인 친환경 산업프로젝트
 - ‘공업녹색발전계획’은 2050년까지 대부분의 산업단지와 제조공장을 친환경 제조 환경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이 목표
 - 2017년부터 이를 선도하는 제조공장과 산업단지를 각각 ‘녹색공장’과 ‘녹색산업단지(綠色園區)’로 선정하여 표창하고 세금 인하, 대출 우대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
 - ‘녹색산업단지’와 ‘녹색공장’은 공업정보화부가 1~2년에 한 번씩 부처 내 심사위원회의 평가와 외부 자문전문가위원회의 평가를 종합하여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선정
 - ‘녹색공장’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여러 조건을 갖추어야 함
 - 공장 건설 과정에서부터 친환경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자연채광 방식을 활용하여 에너지효율을 대폭 향상
 - 생산 과정에서는 친환경관리전담위원회를 설치하여 전 직원이 참여하는 에너지 절약목표책임제를 시행
 - 공장 조업 중에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하고 소음, 온실가스 등의 배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관리 감독

2021년 중국 전체 ‘녹색공장’의 현황

- 2022년 1월에 공업정보화부가 발표한 2021년도 중국 전역의 녹색공장은 662곳, 녹색산업단지는 52곳

- 그 외 녹색디자인제품을 989개, 녹색공급망 관리시범사업을 107개 선정
- 주요 도시별로 선정된 녹색공장을 살펴보면, ▶베이징(北京)시 29개, ▶상하이(上海)시 23개, ▶톈진(天津)시 28개, ▶선전(深圳)시 14개 등임
- 녹색산업단지는 ▶베이징시 3개, ▶상하이시 2개, ▶톈진시 2개, ▶선전시 1개 등임

2022년에 녹색공장을 대폭 늘리려는 충칭시

- 2021년에 공업정보화부가 선정한 충칭(重慶)시의 녹색공장은 18개로, 중국 내 4대 직할시¹⁾ 중 가장 적었음
- 2021년 말까지 누적 녹색공장은 171개, 녹색산업단지는 15개로, 역시 다른 직할시와 비교할 때 저조한 수준
 - 기존에 선정된 녹색공장에는 한국 투자기업으로 SK하이닉스 충칭공장과 한국타이어 충칭공장이 포함



[사진] 2021년에 녹색공장으로 선정된 한국타이어 충칭공장 (출처: 자동차의 집)

- 지난 3월 충칭시 정부는 2022년에 선정될 녹색공장과 녹색산업단지의 목표를 각각 50개와 5개로 발표
- 이는 연간 선정 녹색공장과 녹색산업단지로는 가장 많은 목표 수치로, 2021년 전국 도시별 순위로 볼 때도 최고 수준임
 - 2021년 도시별로 가장 많은 녹색공장이 선정된 베이징시조차 29개였음

1) 중국 내 4대 직할시는 베이징시, 상하이시, 톈진시, 그리고 충칭시임

- 충칭市 정부가 이처럼 녹색공장과 녹색산업단지를 대폭 늘리려는 배경은 2021년 3월에 중국정부가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여서 2030년에 탄소 배출량의 정점을 찍고 2060년에 탄소중립을 실현하려는 ‘3060목표(目標)’ 행동방안을 발표했기 때문
 - 2021년 하반기 들어 중국 중앙정부는 모든 지방정부에 ‘2021년 에너지 소비 감축 목표’의 철저한 준수를 지시했고, 이로 인해 화력발전의 비중이 높은 화북(華北) 지역²⁾과 동북3성을 중심으로 유례없는 전력난이 발생
 - 표면적으로 보면 전력난은 국내외에서의 석탄 공급이 일시적으로 부족해지면서 일어났으나, 실상은 지방정부가 ‘2021년 에너지 소비 감축 목표’를 무리하게 엄수하면서 전기 공급에 실패했기 때문에 발생
 - 충칭市 정부로서는 당장의 ‘2022년 에너지 소비 감축 목표’와 장기적으로는 ‘3060 목표’를 준수하기 위해서라도 녹색공장과 녹색산업단지를 늘려야 하는 상황

https://www.cqrb.cn/content/2022-03/15/content_372087.htm

https://m.thepaper.cn/baijiahao_16423622

<https://baijiahao.baidu.com/s?id=1725886082861364589>

<https://zhuanlan.zhihu.com/p/432362147>

모종혁 통신원, jhmo71@naver.com

2) ‘화북(華北)지역’은 양쯔강(長江) 중하류를 기점으로 해 양쯔강의 북부 지방을 일컫음

민간단체 주도하에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생활임금 제도 시행

캐나다 앨버타주 / 사회·복지

코로나19 이후 배달, 운송 등의 분야에서 깃 노동자(Gig Worker¹⁾)가 늘어나면서 새로운 일자리로 자리 잡고 있지만 정규직으로 분류되지 않아 연금, 실업급여 등에서 배제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음. 기존 노동자뿐만 아니라 깃 노동자와 같은 비정규직들의 기본적인 삶의 영위를 위해 민간단체가 정부의 협조를 받아 생활임금을 정하고,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해 시행

생활임금 제도의 배경 및 취지와 현황

- 생활임금은 개인과 가족이 단순히 생존하는 것뿐만 아니라 존엄하게 살 수 있어야 하고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최소한의 기본권에 대한 신념에 뿌리를 두고 있음
 - 수년 동안 최저임금은 풀타임으로 일하는 사람들조차 빈곤선 이상으로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일 정도로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을 받음
-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최저 소득으로 정의
 - 식료품, 주택, 의복 등 최저 생계를 위한 임금으로서, 정부에서 규정한 노동자 1인당 최저임금과는 개념이 다름
 - 생활임금은 정부의 추가적인 소득 보조를 받지 않고서도 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수준을 제시
 - 생활임금의 목표는 근로자가 정부 보조금 없이 고용을 통해 기본적으로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 생활임금의 취지와 성격상 각 지역의 물가와 연동되기 때문에 생활임금 수준은 지역과 가구 유형에 따라 다른 것이 특징
 - ‘가족 임금’으로 불리기도 하며, 자신을 부양할 뿐만 아니라 가족을 부양하기에 충분한 금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중요
- 현재 캐나다의 앨버타주,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온타리오주에서는 민간 부문에서 다음과 같은 민간단체의 주도로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해 생활임금 제도를 시행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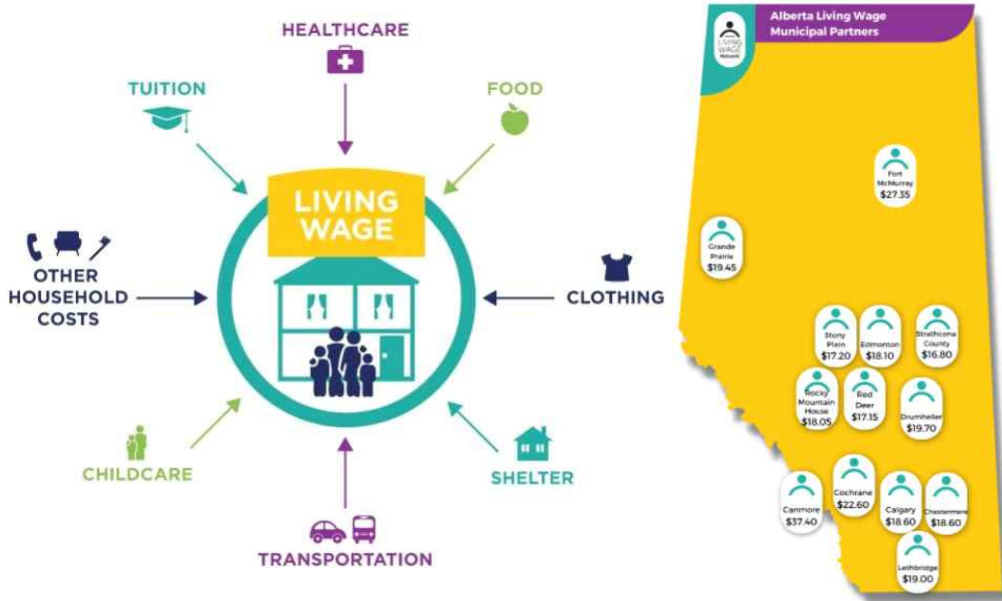
1) 깃 노동자는 독립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 온라인 플랫폼 노동자(online platform worker), 외주업체 노동자(contract firm worker), 호출 대기 노동자(on-call worker), 임시직 노동자(temporary worker; 비정규직)를 가리킴. 깃 노동자는 작업 주문 회사(on-demand company)와 공식 계약을 맺고 회사의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출처: 위키피디아)

- 앨버타 생활임금 네트워크(Alberta Living Wage Network)
- 브리티시컬럼비아(BC) 가족을 위한 생활임금(Living Wages for Families BC)
- 온타리오 생활임금 네트워크(Ontario Living Wage Network)

앨버타 생활임금 네트워크의 생활임금 제도

- 생활임금을 준수하는 고용주로 인증받으려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차별을 두지 않고 최소한 생활임금을 지급해야 함
- 생활임금은 두 자녀를 부양하는 경제활동 중인 성인 2명이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벌어야 하는 금액을 반영
 - 고용주는 약값, 치과 치료비 등 복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임금을 상쇄할 수도 있음
 - 생활임금 수령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직원은 연간 최소 120시간을 근로해야 함
- 생활임금은 두 명의 어린 자녀와 두 명의 부모로 구성된 가족의 필요 소득으로 산정
 -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세후 소득과 보편적 정부 보조금의 총액을 시간당 급여로 환산하여 산정
 - 두 부모가 모두 풀타임으로 일하고 식료품, 의복, 주거의 기본 요소를 포함한다고 가정하고 추가로 긴급 지출, 교육에 대한 소액 투자 및 보육을 고려
 - 주거 요소는 2016년 캐나다 통계청의 인구 조사를 기반으로 하여 소득 2분위 가구의 평균적인 형태인 침실 3개의 임대주택을 기준으로 함
 - 이외 가구당 필요로 하는 가전제품과 세입자 보험도 추가
 - 식료품은 주정부의 영양 권장 사항을 충족하고 일반적인 식품 구매 패턴을 반영하는 식료품 비용에 대한 앨버타 보건국의 자료를 기반으로 함
 - 앨버타 보건국과 앨버타 농삼림부는 4개 지역의 약 50개 지역에서 식료품 가격을 수집
 - 피복류는 4인 가족의 신발 및 의류를 포함하는 캐나다 통계청의 장바구니 물가(Market Basket Measure)를 기반으로 함
 - 교통비는 통근, 쇼핑, 기타 일상생활의 필요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각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다르고 교외 지역은 유일한 교통수단을 자동차로 간주
 - 개인 교통비는 연간 1,200리터의 휘발유와 함께 8년 정도 된 소형차 보유를 기준으로 함
 - 대중교통 비용에는 성인 2명과 어린이 1명의 월간 대중교통 이용권과 12회 왕복 택시 이용에 대한 추가 금액을 포함

- 육아 비용은 만 4세 아동의 12개월 보육 비용을 적용하고, 10개월간의 방과 후 돌봄을 포함함
- 교육비는 무상교육이 끝나는 학부 과정의 등록금 및 교재비로 산정
- 그 밖에 통신 서비스, 홈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책, 문구류 등을 포함



[그림] 생활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품목과 관내 각 도시에서 산정된 생활임금
(앨버타의 시간당 최저임금 15달러 기준)

(출처: <https://livingwagealberta.ca/how-living-wages-are-calculated/>)

현행 생활임금 제도의 장점과 한계 등 정책 평가

- 직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 기본적인 생활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어 지역사회에 기여할 여력이 생김
- 직원들의 결근이 줄고, 직원 이직률이 낮아져 채용 및 교육 비용을 절감
- 직원 개개인의 교육기회 확대
-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기업 입장에서 지역사회에서 회사의 인지도/지명도를 높일 수 있음

- 그러나 현행 생활임금 제도는 민간단체 주도하에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제도로, 현재까지 정부 주도의 생활임금 제도는 존재하지 않음
 - 현재 정부의 역할은 적절한 생활임금의 산정을 위한 물가 정보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정도임

<https://livingwagealberta.ca/>

장 지 훈 통신원, macgyvar@gmail.com

출산휴가 확대 등 고용법 개정안 통과

말레이시아 / 사회·복지

말레이시아 상원은 고용법 개정안(Employment Bill 2021)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킴. 이 개정안은 임신부의 출산휴가 일수를 늘리고, 성범죄 처벌 강화, 강제노동 금지 등 노동자 권리 강화를 위한 내용을 포함

배경

- 말레이시아 고용법 개정안(Employment Bill 2021) 통과
 - 고용법 개정안 말레이시아 상원 통과
 - 2021년 10월 25일 고용법 개정안 발의
 - 2022년 3월 21일 하원에서 통과
 - 2022년 3월 30일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
 - 개정안은 46개 조항 포함
 - 이 개정안은 기존 6개 조항을 폐지하고 10개 조항을 새롭게 추가했으며, 28개 조항을 개정
 - 출산휴가 확대 등 노동자 권리 보장
 - 2022년 3월 말레이시아 정부는 5월 1일부터 월 최저임금을 1,200링깃(2022년 4월 현재 약 34만 원)에서 1,500링깃(약 43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발표
 - 이 개정안은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출산휴가 확대, 성범죄 처벌 강화, 강제노동 금지 등의 내용 포함
 - 국제기구 핵심협약 비준
 -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rans Pacific Partnership),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등 국제기구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된 법 개정

고용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 여성 노동자 권리 강화
 - 노동자의 일과 생활 균형 제도 개선
 - 출산휴가 기간을 국제노동기구 권고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임신부의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8일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도입

- 배우자 출산휴가는 최초 3일로 규정했으나, 3월 23일 하원은 투표를 거쳐 7일로 연장
- 임신부 차별 금지
 - 고용주가 여성 노동자의 임신, 출산 혹은 임신과 관계된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해고를 통보할 수 없다는 조항이 새롭게 추가
- 성범죄 처벌 강화
 - 기존 고용법 81조F에 따라 고용주가 성범죄가 의심되는 사실을 알고도 보고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최대 10만 링깃(약 2,800만 원)의 벌금을 50만 링깃(약 1억 4,000만 원)으로 5배 인상
- 노동자 권리 보장
 - 노동시간 상한을 줄임
 - 주간 노동시간을 48시간에서 45시간으로 축소
 - 강제노동 금지
 - 국제노동기구 협약에 따라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90조B 조항 신설
 - 90조B에 따르면,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업무를 강요하거나 퇴근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 10만 링깃(약 2,8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과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병과(併科)
 - 2022년 3월 21일 말레이시아는 전 세계에서 58번째, 아세안 국가에서는 베트남에 이어 두 번째로 국제노동기구 협약 29호인 강제노동 금지 관련 협약을 비준
- 고용법 적용 확대
 - 고용법 개정안 적용 대상 확대
 - 기존 고용법 81조G는 월 소득 2,000링깃(약 57만 원) 이하, 고정 소득이 없는 노동자, 이륜차로 영업하는 노동자, 가사도우미 등을 포함하는 제1범주(First Schedule)에 속한 노동자만 고용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
 - 이에 따라 일부 노동자는 출산휴가, 성차별 금지 등 임금 수준과 상관없이 적용돼야 할 조항에서 적용이 제외되는 문제 발생
 - 이번 고용법 개정안은 제1범주를 수정하고 기존 고용법 44조A, 69조B, 69조C, 69조E, 81조G에 규정된 임금에 따른 제한사항을 철폐해 노동자 차별규정을 정비
- 남녀 고용 평등
 - 남녀 동등권 보장을 저해하는 관련 조항 폐지
 - 국제노동기구 차별금지협약에 따라 여성 노동자가 야간이나 지하 공간에서 근무하는 것을 금지하는 고용법 제8장 철폐

정책 평가

- 말레이시아 고용법 개정안은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된 사항 등을 포함해 국제사회 요구에 부응했다는 평가를 받음
- 또한, 임신부의 출산휴가 일수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도입, 남녀 고용 평등 등 최근 쟁점화된 노동자 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https://www.therakyatpost.com/news/malaysia/2022/03/22/paternity-and-maternity-leaves-increased-after-amendments-to-employment-act/>

<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2d3d130b-0127-47a3-9a8a-7ce3c56d5976><https://www.nst.com.my/news/government-public-policy/2022/03/781909/approved-amendments-employment-act-covering-paternity>

홍 성 아 통신원, tjddk4277@gmail.com

취약계층의 청년 대상 맞춤형 직업교육과정 운영

인도 델리 NCT¹⁾ / 행정장·교육

델리 NCT 정부는 지역 대학과 연계하여 취약계층의 청년 대상 맞춤형 직업기술 교육과 취업 연계 과정을 제공하고 있음. 취약계층에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지역 슬럼화를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

정책적 배경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불황 속에서 실업과 빈곤이 심화하는 가운데, 이를 완화하기 위해 지역 내 다양한 인적자원을 양성하고 고용 확대를 위한 방안이 필요
 - 특히, 지역 내 빈곤 심화에 따라 슬럼가 확대 방지 대책 시급
- 지역 내 빈곤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취약계층 청년의 취업 확대를 위한 방안이 필요
 - 이를 위해 행정부, 비영리 기관, 대학 등 교육 주체가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주요 내용

- 델리 NCT 정부는 비영리 기관인 등대공동체(Lighthouse communities)와 업무 지원 협약을 맺고, 취약계층의 청년 대상으로 ‘등대(Lighthouse) 프로젝트’를 진행
 - 만 18~30세의 청년 중에서 교육 및 고용시장에서 배제되어온 여성, 무(無)경력자, 저소득층, 슬럼가 주민 등을 중심으로 혜택을 제공할 예정
- 이 프로젝트는 델리기술경영대학(Delhi skill and entrepreneurship university)이 위탁 운영하며, 1년 단위 프로그램으로 55개 이상의 기술교육 과정을 제공
 - 이 프로그램은 전반기 동안 영어 학습, 자신감 향상 및 진로 탐색 과정을 거쳐, 후반기에는 원하는 실무 기술교육을 제공한 후에 취업시장과 연계시킬 예정
 - 의류 디자인, 보건, 관광, 미용, Java 및 C++ 등 프로그램 개발 등 산업현장에서 수요가 많은 기술 중심으로 전문가를 육성할 계획

1) 델리 NCT(National Capital Territory of Delhi)는 올드델리(Old Delhi)와 뉴델리(New Delhi)를 합친 델리 수도직할지역. 뉴델리시가 인도의 수도

- 실제 교육을 진행하는 등대(Lighthouse) 교육센터는 이미 설치된 1개소를 포함해 총 4개소를 슬럼가에 설치할 예정으로, 센터당 매년 600명 이상의 청년에게 혜택을 제공할 계획
 - 센터당 4개 교육실을 기본으로 하고 상담실, 화상 회의실, 자습실 등으로 구성
 - 수료생에게 공식 수료증을 발급하고 취업을 위한 진로 탐색, 이력서 작성, 모의 면접 등의 서비스도 제공
 - 구직자의 채용을 위해 3천여 개 기업과 연계 체계 구축
 - 특히, 슬럼가 주민들의 변화를 통해 지역사회를 정상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해 등대 교육센터에서 빈민가 청년들을 직접 방문, 이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교육생을 모집

정책 평가

- 저소득층의 청년을 대상으로 기술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인재를 발굴하고 인적 자원을 양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변화에 기여
- 대학을 취약계층의 직업교육 현장으로 활용하고,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1년 교육과정 동안 육성한 후 취업 현장과 매칭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사진] 등대 교육센터의 기술교육실 모습

<https://www.indianexpress.com/article/cities/delhi/sisodia-inaugurates-centre-for-skill-based-courses-for-underprivileged-youth-7812452/>

<https://www.indianexpress.com/article/education/dseu-skill-based-courses-on-campus-work-experience-with-industry-experts-and-paid-stipend-7415558/>

<https://www.lighthousecommunities.org/program/>

<https://www.thehindu.com/news/cities/Delhi/delhi-govt-to-start-lighthouse-project-for-marginalised-youth/article34834216.ece>

<https://www.thehindu.com/news/cities/Delhi/delhi-govt-inaugurates-lighthouse-project-for-marginalised-youth/article65208183.ece>

<https://www.timesofindia.indiatimes.com/city/delhi/govt-sets-up-lighthouse-to-train-slum-youths-at-its-skill-varsity-make-them-ready-for-employment/articleshow/90110034.cms>

박 원 빈 통신원, samc21@naver.com

디지털 주차요금 결제시스템 전면 도입

말레이시아 슬랑고르주 / 도시교통

말레이시아 슬랑고르주는 2022년 4월 1일부터 애플리케이션으로 주차요금을 결제하는 디지털 주차 시스템인 ‘스마트 슬랑고르 주차(Smart Selangor Parking)’ 사용을 의무화. 슬랑고르 주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결제방식으로 전환해 차량 출차(出車) 시간을 줄이고 주차에 따른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함

배경 및 목적

- 기존의 주차요금 결제방식이 불편함을 초래
 - 말레이시아는 주차 시 연도와 월, 일, 시, 분을 표시한 주차쿠폰(scratch-and-display coupon)을 차량의 앞유리 쪽에 놓아두는 방식으로 운영
 - 예를 들어, 2022년 4월 1일 오후 2시 10분에 주차하는 경우 2022, 4, 1, 2, 10이 기재된 주차쿠폰을 차량의 앞유리 쪽에 놓아두어야 함
 - 이밖에 주차관리원이나 단말기를 사용해 주차요금을 직접 결제하기도 함
 - 기존 주차요금 결제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디지털 주차요금 결제시스템을 도입
 - 슈퍼마켓, 키오스크에서 주차쿠폰을 구매해야 하고, 주차관리원을 통해 결제하는 경우 실랑이가 발생하는 등 문제 발생
 - 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 단말기를 찾기 위해 주차장을 헤매거나 요금 정산을 위해 대기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

주요 내용

- 디지털 주차 시스템으로 전환 본격화
 - 2019년 8월 페낭주¹⁾는 말레이시아에서는 처음으로 디지털 주차 시스템인 페낭 스마트 주차(Penang Smart Parking, PSP) 애플리케이션 사용을 의무화
 - 스마트 주차 시스템은 사물인터넷, 전자지갑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주차장 위치 및 이용 가능 여부 관련 정보를 제공해 주차 가능한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
 - 이를 통해 주차장 주변 교통혼잡 감소, 주차장 회전을 제고 등의 효과가 나타남

1) 페낭주는 말레이시아 북서쪽에 위치한 도시로, 수도인 쿠알라룸푸르에 이은 제2의 경제 도시

- 2020년 10월 쿠알라룸푸르市는 모바일 또는 전자지갑 애플리케이션으로 주차요금을 결제하는 방식을 의무화
 - 기존에 운영했던 주차요금 단말기를 모두 철거하고, 市가 구축한 주차 전용 애플리케이션인 이지 스마트 파크(EZ Smart Park) 사용을 의무화
 - 이밖에 플렉시 파킹(Flexi Parking), 윌라야 파킹(Wilayah Parking) 등 주차 애플리케이션 또는 부스트(Boost), 터치엔고(Touch'n Go) 등 전자지갑 애플리케이션으로 주차요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지원
- 2022년 4월 말레이시아 수도권 지역인 슬랑고르州는 말레이시아에서 세 번째로 주차 방식을 전면 디지털로 전환
 -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주차요금을 결제하는 디지털 주차 시스템 '스마트 슬랑고르 주차(Smart Selangor Parking)'를 비롯해 쿠알라룸푸르市와 동일한 주차 애플리케이션과 전자지갑 애플리케이션으로 주차요금 결제 가능

문제점 및 개선 노력

- 디지털 주차 결제 방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
 - 스마트폰이나 온라인 뱅킹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디지털 취약계층을 배려하지 않았다는 의견 대두
 - 또한 기존에 주차쿠폰을 판매하던 슈퍼마켓, 편의점 등 소규모 사업장의 손실보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 노력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정부는 전자화폐 구매 및 충전을 지원하는 전자쿠폰 판매상(e-coupon vendor)을 운영
 - 지방정부는 기존에 주차쿠폰을 판매하던 소규모 사업장을 전자쿠폰 판매상으로 정식으로 지정해 기존에 주차쿠폰을 구매하던 디지털 취약계층을 배려하고 사업장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지원



[사진] 말레이시아에서 주차요금 결제 시 사용하는 주차쿠폰

BERMULA 1 APRIL 2022

PEMBAYARAN PARKIR KERETA SECARA
DIGITAL SEPENUHNYA

**GUNAKAN 'eKUPON' DI
APLIKASI SMART
SELANGOR PARKING**

IMBAS UNTUK
MAKLUMAT LANJUT

#SenanglahSSP

@SmartSelangorParking 1700-81-9612

[그림] 슬랑고르주는 2022년 4월 1일부로 주차요금 결제방식을 변경

<https://www.thestar.com.my/metro/metro-news/2021/03/24/cashless-all-the-way>

<https://www.thestar.com.my/metro/metro-news/2022/02/24/two-hour-parking-limit-from-june-1>

<https://themalaysianreserve.com/2020/12/30/parking-made-easy-in-kl-with-digital-payment/>

홍 성 아 통신원, tjddk4277@gmail.com

세계도시동향 제523호

발행인 박형수
발행처 서울연구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ISSN 2586-5102
발행일 2022년 4월 18일

세계도시동향은 서울시 정책 개발과 도시 관련 연구에 참고할 가치가 있는
해외 주요도시의 정책사례와 동향을 소개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활동 중인 해외통신원들이
시의성 있는 사례와 정확한 현지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도시동향에 관한 문의나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연구원 도시정보실 출판팀 세계도시동향 담당
(trees29@si.re.kr)에게 연락 바랍니다.

